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박 상 호

3. 제2의 광복 사람과 사람의 통일 | 4.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유럽선교여행) | 6.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두교회 | 9. 민선 4기에 바란다!!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6년 8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93호**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찾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암9:7,8a)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단4:17)

분명 조국이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주후 56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당시 로마는 권력의 중심지요, 거의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행정의 구심점이었다. 그는 이 편지에서 엄청난 세계해석을 그려 놓았고 완전한 희망의 인류사의 시간 규정을 제시해 주었다. 바울은 말한다. "죽음과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지배자이며, 우리의 육체는 우리 위에서 왕 노릇하는 거대한 괴물인 죽음의 본거지이다. 그러나 세계의 왕 노릇하는 죄가 유일한 지배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세계의 주이시며 그는 죽음과 죄보다 강하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받은(롬8:2), 하늘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다(빌3:20a-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본 자들이다). 또한 몸의 구속을 바라는 소망의 사람들이다(롬8:23; 빌3:20b-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이 생명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며, 이 소망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전 세계를 정복한 카이사 그 이상으로 기뻐한다(롬5:3; 8:37).

우리를 해방시킨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니, 그리하여 그들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가운데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행6:18)고 말씀하신다. 주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신(사59:16) 적이 있다. 증보는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땅의 성도들이 수행하는 일이 되었다. 이 땅의 흩어진 나그네로 부름 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로 완전케 되어 진정한 화해자되신 예수님을 보여 주어야 한다(요17:23).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요14:11),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왕국을 보여주어(롬14:17-20) 그들로 해방시켜야 한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서 그 씨가 뿌려지느니라."고 한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들인다는 말이다. 결국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방식으로 말미암은 행위들을 보이라는 것이다.

어느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령해야 할 땅으로 맡겨 주신 춘천의 성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비전을 보았다. 함께 동참해 보지 않겠는가?

[편집부 이영규]



이달의 말씀

시편 126장 1-2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세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과 바른 운영
외국어 고등학교가 남산면의 개발과 함께 도시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어 외국어 체험마을, 외국어 초 · 중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 수해지역의 회복과 이재민의 보호
계속되는 장마 속에 집과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에게 온 국민들의 성원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 하도록.

· 여름수련회의 안전 운영
많은 비와 불순한 일기 속에서 개 교회와 단체의 수련회가 준비 ·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진행되며 교회들마다 청소년들안에 부흥의 기틀이 마련되도록.

· 성시운동본부 창립10주년
그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 속에 장족의 발전을 하며 9월에 창립10주년을 맞는 성시운동본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선교와 함께 지역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역에 더욱 전문화되어 거룩한 춘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이뤄 나가도록.

2006년말까지 무료체험!-목욕시설 완비

카페주소 : 카페에서 강촌 갈보리기도원을 치세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기적의 연못 춘천 유황온천

직원 모집
● 찬양사역 및 연주자우급
● 관리집사(연령제한 없음, 믿음을 겸비한 퇴직자 환영)

여름 신상죽복성회
성막 무료 세미나
■1차:7.30~8.2 ■2차:8.7~8.10 7:30 부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세계성막복음센터에서 성막전임강사로 700여 교회와 2만여 한국교회성도, 대만, 일본, 재미교포 성도들에게 성막의 복음을 전한 남성종 목사가 인도하는 금번 세미나는 신앙의 점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목회의 현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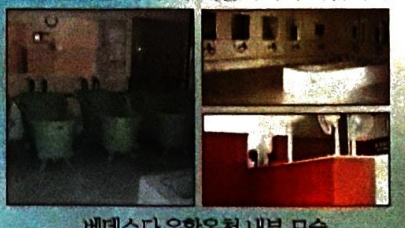
강사 남성종 목사
● 주평광교회
● 성막보전협구소소장
● 전 오산금호기도원 원목
● 세계성막복음의 전령사

■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목요찬양예배)
■ 매주 금요일 저녁 9시(금요철야 강사 남성종 목사)

강원의 기적! 춘천의 자랑!
일본관광객을 춘천에서 유치하자!
춘천에서 유일한 유황온천과 먹는 음용수!
7만 여평의 초자연 대지위에 자연과 유황온천 어우러진 동산!
800m 지하에서 솟은 유황온천 춘천의 자랑이며 기적의 물!
모든 분들께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온천!
먹는 유황물과 온천수는 아토피, 아성피부병, 위장병, 당뇨, 혈압, 관절, 비염 등 치료에 필요한 탁월한 성분이 들어 있으므로 오셔서 체험하세요.

차량운행(무료)
● 터미널 이마트옆 도세마을금고 옆에서 출발 하루 3번 운행
●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 오후 7시

누구든지 오셔서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유황온천 내부 모습
※단 예배에 참석한 분에 한하여 무료로 입욕 가능합니다.

2005년 12월 당시 유황온천이 터져나오는 광경

강촌 갈보리기도원
베데스다 연못 기적의 유황온천
☎ (033)263-4466 / 263-4477
강원도 춘천시 서면 당림1리 400-6(당림초등학교 입구)

한국번개건축(KBB)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Korea

한국해비타트(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의 자원봉사 축제인 한국번개건축(Korea Blitz Build)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6개 지회에서 6백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입주가정, 후원기업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린다.

번개건축이 열리는 지역은 강원도 춘천, 경기도 수원, 전북 군산, 경남 진주, 태백, 삼척 등 6개 지역이다. 2006 KBB에는 한국해비타트 홍보대사 탤런트 이재룡씨(경기 수원), 여성가수 4인조그룹 LPG(이상 8월4일 수원현장) 대한항공 프로배구단(7월 31일~8월 2일, 춘천) 등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한다. KBB 기간에는 집을 짓는 일 외에 작업이 끝난 뒤에 자원봉사자 장기자랑, 캠프파이어, 문화의 밤, 헌정식, 영화감상 등의 프로그램이 각 지회별로 진행된다.

춘천지회의 한국번개건축 행사도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망의 마을에서 대한항공, 라파즈시멘트, 한국증권금융 등 전국의 기업체와 학생, 개인과 단체 자원봉사자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춘천지회는 올해 1등 4세대를 건축,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석연휴에 입주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해비타트는 수해피해 지역의 복구활동을 도울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복구 활동은 수해로 파손된 주택의 보수 등을 위한 집고치기 활동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







강원 기독경영인 아카데미 2기생을 모집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기독경영인상을 확립시키고, 21세기에 경영분야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내 경영분야 동역자들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강원 기독경영인 아카데미'(주임교수:박의범강원대교수)가 제2기생을 모집한다.

(사)한국기독경영연구원이 주관하고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후원하는 강원 기독경영인 아카데미'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30분 강원지방중소기업청 1층 강당(춘천시 퇴계동)에서 열리게 된다.

아카데미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경영, 불황을 뚫는 중소기업 생존전략, 기독인의 직장관, 기독경영인 부부리더십, 현장에서 보는 기독경영, 재무관리에 관한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의 마케팅, 기업의 기독경영, 기독경영인의 대인관계 등이다.

강사진은 김재명 강원대교수, 노진표 연세대교수, 박의범 강원대교수, 신세철 동승아크회장, 인동규 한림대교수, 임성빈 장신대교수, 장순웅 비엠넷대표, 조영춘 춘천성시본부사무총장, 천상만 국제생산성본부교수, 한상열 중앙에버니스사장, 한정화 한양대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252-5959, 김지현011-9057-3946, 백종진 016-779-1275]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푸른강원

"강원도민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지역 발전과 복음화의 지름길입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와 강원도민사랑운동을 실천하는 '2006년 백두대간 횃불기도회'가 오는 9월 3일(주일)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열린다.

강원기독교총연합회(회장:김용성목사)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18시 시·군 기독교연합회 깃발입장식과 찬양축제 등이 진행되고 특별강사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민병억 목사와 본회 회장 김용성 목사의 강연과 탤런트 이유리(서울온누리교회)의 간증을 통한 은혜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유심초, 이평찬, 이승재, 찬미엘, 예찬워십팀 등의 복음가수들의 페스티벌이 펼쳐지며 수재민, 결손가정 결식아동, 무의탁 독거노인 등을 위한 성금전달식을 갖는다.

올해 8회째인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는 분단도의 아픔을 가진 강원도 기독인들이 세계평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연합운동이다. 이 대회를 통해 도내 2000여 교회와 35만 성도의 역량 및 의지가 하나 되어 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강원도의 발전과 복음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을 기대해본다.

[강원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오승룡목사]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 : 박상호 조영춘
최영조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91
춘천시 효자1동 373-90
춘천성시신문 앞
대표전화 : 033)256-1260
FAX : 033)257-1260
011-361-2004
010-7347-9004
010-3118-9355

Habitat for Humanity Chuncheon

해 비 타 트

-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 춘천지회 -

우)200-030 춘천시 요선동 9-1 TEL : 254-0009 FAX : 254-8877 E-mail : chuncheon@habitat.or.kr

Korea Blitz Build 2006 춘천현장 / 한국번개건축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사랑의집짓기운동)는 자원봉사축제인 한국번개건축이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자원봉사자와 입주가정, 후원기업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 간	2006. 7. 31(월) ~ 2006. 8. 5(토)	
장 소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162-6 소망의 마을	
사업규모	전용면적 16평형 1동 4세대 건축	
Special Event	7.31(월) 14:00~15:00 소망의 마을 건축현장	개회식 (Opening Ceremony)
	8.3(목) 19:30~21:00 공무원 연수원 강당	자원봉사자의 밤 (Volunteer's Night)
	8.4(금) 16:00~17:30 소망의 마을 건축현장	헌정식 (Dedication Ceremony)
	8.5(토) 10:30~12:00 소망의 마을 건축현장	폐회식 (Closing Ceremony)
참여인원	춘천 / 국내외 자원봉사자 70 명	

♡후원계좌 농협(예금주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 춘천지회) 203 - 01 - 532101 계좌로 자유롭게 1구좌 3천 원 이상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제2의 광복 - 사람과 사람의 통일로 이루는 나라

이번 시간은 강경민(일산은혜교회, 성서한국 조직위원장)목사 편입니다.



정: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6년 성서한국대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준비한다는 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사회선교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강: 고등부 시절 겨자씨모임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독서모임이 있었어요. 약 4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책을 읽으며 토론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면서부터 사회선교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신학적 체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신학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이후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이 목회라는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변혁운동은 교회의 갱신과 변혁이 없으면 어렵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사회선교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 소명은 사회선교운동이 아니라 목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은 1974년 로잔대회에서 선언문으로 발표된 로잔언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잔언약의 역사적 의의와 그 당시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운동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하신다면.

강: 한국 보수주의 교회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는 사회선교운동의 세계적 흐름과 비교해 볼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선교운동은 1974년 로잔대회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고, 로잔선언문으로 최종적인 신학적 정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현재까지도 로잔언약은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선언문으로 거의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 우리 한국 보수주의, 복음주의 교회는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신복음주의라고 부르면서 정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1974년 로잔대회에 한국 지도자 50여명(조종남, 김의환, 김명혁 등)이 참여하였는데요, 귀국하면서 한국교회에게 다녀왔다는 말을 하지 말자, 신복음주의자로 낙인찍힌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만큼 한국교회는 신학적으로 닫혀져 있었어요. 70년대는 정경분리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60년대말 3선 개헌이나 70년대 유신체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의 정경분리의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모순되게 적용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과제-교회연합, 선교사적 삶, 통일한국"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이루는 첫 걸음"

정: 뒤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 민주화운동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참여운동이 표면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사회참여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 1980년대는 민주화를 위한 격렬한 투쟁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5 · 18 광주항쟁이었어요. 이를 계기로 남한사회에 자생적으로 좌경화되는 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력은 군부독재에 반대하면서 독재세력을 옹호하는 듯이 보이는 미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회적 참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박철수,이문식,고직한,김호열,김회권,박문제 등). 서울대 기독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독교문화운동연합(기문연)이 생겼고, 86년에는 복음주의 청년연합(복청), 복음주의 학생협의회(복협)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87년 대선을 감시하는 공정선거감시운동으로 연결되었어요. 당시 진보적인 교단(NCC)쪽에서 보수적, 복음주의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깜짝 놀랐지요. 복청이나 복협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서 사회변혁적 목표를 가지고 조직된 최초의 운동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 1986년에 복청이나 복협이 결성되었으니까 벌써 20년이 흘러갔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사회참여, 사회선교운동이 열매를 맺어 영역별 사회선교운동인 성서한국대회가 더 큰 시각과 신학적 기반위에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복청과 복협의 결성, 그 이후의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 아쉽게도 복청과 복협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공정선거감시운동이 한국사회를 민주화로 성숙되게 하는 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87년 대선시 김영삼, 김대중의 양김의 분열 속에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운동의 열정은 고갈된 채, 운동의 방향을 놓고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서울대 기문연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 복청은 실재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각오로 기도하다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갑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절제되고 성숙된 시각으로 시대의 고민을 껴안고 복음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이러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복음주의적 시각과 비전을 가진 차세대 지도자를 양육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고, 한국을 성서위에 세워보자는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한국대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정: 목사님, 20년 전과 지금은 국내적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사회선교운동의 과제라고 한다면.

강: 한국교회의 사회선교운동의 과제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사회선교운동을 위해서는 교회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함으로써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역량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노력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선교사라는 신분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해요. 세속화라는 집요한 물결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건설입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또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한국의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통일은 5년 뒤, 10년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탈북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구조적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북녘 형제, 자매들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는 통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제2의 광복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 8월은 광복절이 있는 광복의 달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서 가지는 사명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강: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로마를 들어 쓰셨고, 화란과 독일을, 영국과 미국을 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민족과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개교회주의적인 작은 시각을 버리고, 우리 한민족을 들어 쓰시는 보다 큰 시각을 가지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어요. 폐쇄적 국수주의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를 섬기는 복음적 민족교회를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민족을 위해서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합 것입니다.

정: 내년이 평양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게인 1907 부흥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강: 평양대부흥을 2007년에 재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참으로 좋습니다. 격려를 보내며 저도 힘껏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1907년과 2007년이 매우 다른 시대적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게인 1907년 부흥운동을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윤리적 회개운동으로만 전개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1907년 부흥운동은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백성과 교회가 망국의 비극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회개운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를 껴안은 회개, 각성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성회복운동으로만 나아가지 말고, 현 민족의 아픔과 상황을 껴안고 한국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 목사님,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사역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은 목회입니다. 80년대 당시 복청과 복협을 결성하면서 정치, 사회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정치운동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너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한 상황 속에서 양심운동의 기회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성도들을 목양하며 교회적 차원의 사회선교운동을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일운동은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기도의 제목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사랑의 원동력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제공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인정한 NGO단체가 40여개 되는데요, 그중에 기독교 기관이 70-80%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2의 광복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2006년 7월 28일 성서한국대회 장소 전북 무주리조트
진행 및 글정리 정재호 | 사진 김미경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유럽선교여행기

이번 유럽선교여행은 선교단체 JDM에서 유럽 선교대회를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춘천지구 외 전국에서 약 200명의 대학생들과 간사들이 참여하였고 유럽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함께 하였다

유럽의 여정

출발하기 두 달 전부터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밟게 될 나라에 대해 연구하면서 각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유럽대륙으로 향했다.

우리는 태국항공을 타고 대만을 경유 방콕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약 12시간의 비행 끝에 7월 5일 새벽 6시50분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이날 JDM과 같이 버스로 폼페이와 쏘렌토 그리고 나플리를 방문했다. 화산재에 묻혔다가 발굴되어 관광지로 유명한 폼페이는 최대한 예전의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것이 역력했고, 그 시대의 생활상을 보는 듯 했다. 또한 절벽위에 세워진 도시 쏘렌토는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나플리 항구에 잠시 들렀다가 로마 변두리에 있는 현지 교회의 교육관에 도착해 다음을 준비했다.



다음날 우리 나눔교회 청년들만의 여정이 시작됐다. 프랑스 리옹에서 집결하기로 하고, JDM 학생들도 각자 조별로 흩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났다. 우리 팀은 로마에서 바티칸박물관, 베드로성당, 콜로세움, 포로로마노 등을 구경하면서 이틀을 보냈고, 7월 7일 베네치아에서 싼마르코궁전, 뚜깔레궁전 등을 본 후 밀라노로 향했다. 밀라노에서 두오모성당, 스칼라광장 등을 볼 수 있었다.

7월 9일 새벽 스위스 제네바 기차역에 도착해서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노숙을 했다. 노숙자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게 됐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님과 함께 종교개혁기념비, 칼빈의 생가와 무덤 등을 방문했다.

제네바에서 인터라켄으로 이동, 다음날 7월 10일 새벽 융프라우요흐로 올라가서 하얀 설원을 보았다. 7월 11일 뮈렌에서 노인슈반슈타인성, 호엔슈반가우성 등을 보고 다시 뮌헨으로 이동. 7월 12일 아침 프랑크프르트까지 로멘틱가도를 달리는 유로파버스에 몸을 실었다. 득일의 여러 마을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7월 13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 도착. 루브르박물관, 에펠탑 등 여러 곳을 구경한 후, 선교대회에 참가를 위해 7월 14일 밤 9시경 리옹에 도착했다. 7월 16일 선교대회가 시작되는 전날 JDM 학생들과 합류. 7월 17일 마침내 프랑스선교대회가 시작되었다.

유럽 각 나라들의 모습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한결 같은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의 모습이었다. 아주 견고하고 세밀한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나왔다. 또 이런 모습 속에서 교황의 권력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로마의 바티칸시국은 아직도 로마제국을 연상케 했다. 대부분의 거리가 화려하고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 유럽의 모습. 그러나 과거의 모습을 지키고 현재까지 화려한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유럽의 뒤편에는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다리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마약을 한 것 같은 모습으로 즐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유럽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사탄의 굴레 속에 있는 이 젊은이들의 삶을 바꿔줄 교회가 유럽에 많이 생겨나길 기도해본다.

또한 이번 유럽선교여행을 통해 유럽의 공통된 장점을 3가지 정도 생각해보았다. 첫째는 정교함이다. 건축물들을 보면 예전에 기계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제작하였는데도 아주 정교하고 세밀했다. 둘째는 체계적이라는 것이다. 건축을 설계나 도시계획을 볼 때 순간의 해결책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는 자유함이다. 유럽인들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이 장점 3가지를 주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면 유럽의 부흥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유럽선교대회

유럽 4개국을 탑방하면서 우리가 깨어진 것은 지금까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 아프리카 오지나 아시아의 후진국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 유럽에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특히 프랑스는 개신교도들이 1%가 채 안 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수가 20명이 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프랑스선교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춘천지구 JDM 학생들과 함께 프랑스 리옹에서 1주일 동안 말도 안 통하는 프랑스인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했다. 원래 프랑스인들은 극히 개인적이어서 전도지를 받지 않는다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지를 웃는 모습으로 받아주었다. 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를 본 현지인들이 리옹에서 4월 안지일, 김은경 선교사님이 개척하여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먼저 연락하고 주일예배에 10명이나 참석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주에는 3명이 더 참석했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깨우고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기도한다.

유럽선교대회는 아주 역동적인 대회였다. 기도회를 통해 학생들 중 반 이상이 장,단기 선교사로의 헌신을 다짐하였고, 또한 파워풀한 찬양과 학생들이 준비한 CCD, 스킷드라마, 부채춤 등은 현지 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다는 현지 교인들이 간식을 넘쳐나도록 준비해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분명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셨다. 이제 프랑스의 부흥은 멀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안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춘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중보하기를... 그리고 재정의 후원과 헌신하기를 도전하는 미래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 나눔교회 한창길]





외국어 고등학교와 춘천의 비전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은 의미상 크다면 크고, 또 작게도 볼 수 있는 한 학교의 설립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이뤄질 비전을 살펴보면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많은 꿈들이 담긴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비전과의 문제이다. 춘천은 지금 굴뚝 산업과 같은 기존 공해 산업들이 들어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의 상류로서 식수원의 중심 상수원 도시라는 것과 아직 원활치 못한 교통망,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남한의 북쪽에 위치하며 내륙지방에 속해 있어 환동해 권에서도 밀려 있다는 등등의 문제가 앞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라곤 관광문화자원 행정 도시로서의 발전, 그리고 교육적 자원 등 이 세 가지 영역의 전문화 극대화 작업은 도시 발전의 사활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도시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었고 지역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였다.

그러나 교육적 비전의 전문화나 첨단화를 이루며 다양한 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을 만들어 교육도시로서 경영을 해야 할 시점에 실상은 명문학교도 없고 교육의 특화를 이루는 데는 아직도 역부족이다. 이 맑은 공기 푸른 숲의 아름다운 도시에 세계적인 학교를 세운다면 전국적인 명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비전을 품고 이를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까지 춘천은 지역의 개발문제에 많은 좌절을 경험했다. 그 결과 시내의 사무실은 텅텅 비고 있고 식당마다 파리 날리고 있으며 부동산들은 할 일이 없어 타 도시로 이전해야 살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국책사업이던 태권도공원문제, 미군부대 이전문제, 교통망의 미비로 인한 지역공장들의 이전, 거기에 혁신도시문제 등이 뒤엉켜 과연 이 도시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겨우 전철망이 만들어지고 고속도로가 생기면 서울의 가까운 위성도시로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 밖에는 남지 않은 것이 현 도시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은 이런 지역적 목마름에 해답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금까지 경제적 심층적으로 참담한 침체와 소외감을 경험하며 좌절했던 모든 시민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며 지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강원 외국어학교는 고급교육의 장을 여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다양한 인프라들을 구성할 수 있다. 외국어 초등학교, 외국어 중학교와 함께 외국의 문화 언어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마을 즉, 특화된 외국어 마을과 대규모 국제 태권도수련원을 만들어 국내외의 세계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멋들어진 곳으로 조성을 한다면, 그래서 이곳에 오면 세계를 접할 수 있는 푸르름과 새 문화를 숨 쉬게 되고, 경제적 이익과 함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 누구라도 와서 살고픈 곳, 새로운 지식과 도전이 넘쳐나는 새 도시로 변모될 좋은 비전의 시작이 될 것이다.

특히 춘천은 선비정신이 만들어진 도시이다. 신라의 화랑정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선비정신은 근대 새마을 정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며 세계에 우뚝 서 있다. 이런 정신적 유산을 맥국의 수도 춘천에서 이젠 외국어뿐만 아닌 영국의 기사도 정신보다 훨씬 뛰어난 한국인의 얼과 문화 정신적인 모델을 태권도와 함께 제시하면서 한국의 정신을 전파한다면 이곳은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외국인들의 발길이 머무는 명소가 될 것이다. 현재 여건만 주어진다면 영어 마을과 함께 전 세계인의 태권도 수련원도 같이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전문 태권도인들 중 많은 분들은 무주에 세워질 태권도공원이 지지부진하고 게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실망감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무주보단 강원도가 태권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이에 자체적으로 대규모 수련원을 따로 세우려는 계획을 수립 하고 장소를 물색 중이다. 태권도수련원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 만일 여건만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태권도인의 다양한 역량을 함께 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다양한 세계문화가 숨 쉬고 또 세계를 향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축복의 도시로서 만들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첫걸음인 강원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부턴 시민들과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춘천의 비전이 될 축복의 학교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기도를 모아야 할 것이다.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수마의 아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쉴 틈 없이 퍼붓는 물 폭탄 세례로 처참하게 무너진 강원도. 그 고통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하는 많은 기관들 중에 특히 춘천월드비전의 긴급구호 현장을 함께 체험해 보자.

월드비전 강원지부(지부장 이명신)는 7월 17일(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는 인제, 영월지역을 방문,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세면도구 세제류 청소용도구 돗자리 티셔츠 등이 포함된 긴급구호물품 950세트(4천만원상당)와 라면, 생수 등 850세트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19일(수)에는 피해가 심한 평창지역을 찾아 긴급구호물품 200세트(1천만원상당)를 전달하고 피해 가옥들의 청소 및 짐정리 등을 도와주며 온 힘을 다해 복구에 힘썼다. 특히 이번 수해복구에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활동하는 탤런트 정애리씨가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월드비전은 계속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구호활동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심한 평창지역(진부,봉평)은 평창지회장(평창중앙감리교회 정경석 목사)과 연합하여 계속적인 수해복구활동과 물품지원을 하고있다.

현재 이재민들은 일손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담요 여름추리닝 휴대용가스렌지 비상식량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월드비전 강원지부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 긴급구호물품 키트 : 4만원상당(세면도구,세제,청소도구,의류, 양념 등)
- 성금계좌 : 농협 204-01-080795 조흥 515-01-038052 월드비전
- 문 의 : 월드비전 강원지부(254-7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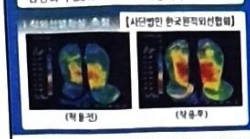


발·다리·허리가 불편하십니까?

원적외선 콜크 웰빙구두 엘파로스가 문제를 개선합니다!!!



남성화 | BCK-451 여성화 | BCK-034



◆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엘파로스를 신으시면 발과 몸이 건강해지고 생활이 즐거워집니다.
◆ 엘파로스(EL PHAROS)는 족부반사구건강법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제조된 기능성 수제화입니다.
◆ 국내 최고의 발건강관리전문가의 자문과 권위 있는 정형외과원장의 추천을 받은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 대리점 및 취급점, 판매하실 분을 모집하오며 구입문의시 출장상담도 해드립니다.

춘천시 소양로2가 서부시장 상가1층 (http://www.sukryu.com)

이 승 철 집사(춘천성광교회) ☎241-5143, 011-9792-0591

JESSI NEW YORK Lemonade 레모네이드

격세지한 아름다운 멋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제 · 선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오픈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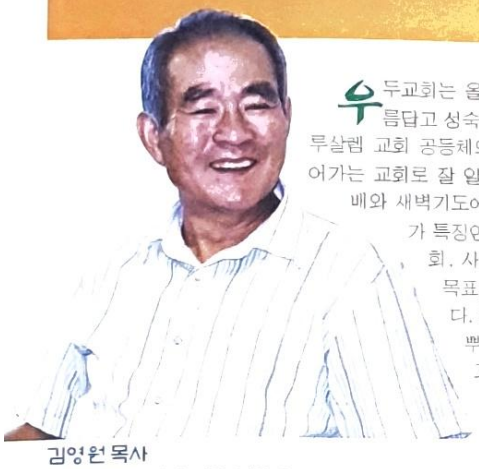
대표 전 순 천

☎ 252-7262

위치 조양동 조흥은행본점 앞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의미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우두교회(김영원 목사)편입니다.



우두교회는 올해로 창립 74주년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이다. 우두교회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좋은 신앙적 유산과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우두교회는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에 목숨을 거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특징인 교회,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등 4대 목표를 모토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이다. 1980년 김영원 목사의 부임 이래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자.

김영원 목사

김영원 목사가 처음 복음을 접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 천안에서 친구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그 계기였다. 어린이 교회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김 목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중고등학교 시절과 청년시절 등은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갖가지 교회봉사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던 때였다고 김 목사는 회고한다. 학교 졸업 후 등화약품 등 몇 군데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주님의 강한 부르심과 모친의 권유 등으로 춘천 지내리교회를 첫 목회지로 목회를 시작하게 된다. 이때는 신학공부도 시작하기도 전, 오직 주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교회를 섬겼다. 우두교회는 김 목사의 생애 속에서는 두 번째 교회이다. 이때가 김 목사가 지내리교회를 충성스럽게 7년을 섬긴 이후의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선교와 섬김의 본이 되는 교회"



군부대 방문

우두교회

우두교회는 초기부터 몇 가지를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왔다. 그 으뜸이 선교사역이다. 해마다 2억 원 이상의 선교비를 지출하는 우두교회는 필리핀의 안창원 선교사와 C국의 김성일 선교사를 단독 파송 선교사로 세웠으며, 우두교회 출신인 조영상 선교사(일본)를 비롯하여 C국의 홍스데반 선교사, 윤인철 선교사와 긴밀한 후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군 선교 또한 우두교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역이다. 1년에 1억 원 이상의 군 선교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군 선교를 위한 찬양단이 조직되어 오지 군부대 방문 등 1년 30여 차례의 위문, 선교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 목사는 찬양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 외에 따로 안보 강연 등을 통해 수시로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주위에서 귀띔한다.

현재 교회 경상비중 선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40%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 교회들의 선교비 비중이 평균 1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선교비 비율이다. IMF 이후 한때 선교비의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외적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꾸준히 예산을 증액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우두교회의 사역 중 장학사업과 어린이집 사역 또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장학사업은 우수한 인재양성과 미래의 꿈나무 육성을 목적으로 해마다 20여명을 선발하여 재정을 후원한다. 일반 학생들을 포함하여 선교사 자녀,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등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그들이 성장하여 여러 분야의 일군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온 교회가 큰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집 사역은 김 목사가 부임한 그 이듬해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교육환경과 잘 갖추어진 교육시스템으로 인근 지역에서 가장 양질의 어린이집으로 정평이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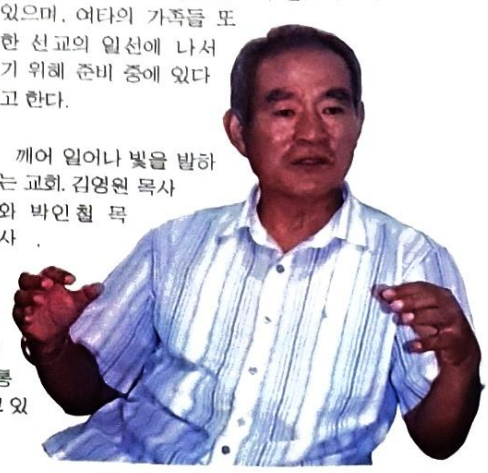
영국에서 시작되어 훌륭한 새 가족 전도 법으로 정착된 알파코스를 교회가 수용, 현재 11기 알파까지 진행되었다. 그 진행 과정 중 알콜 중독의 늪에 빠져있었던 사람이 세사람이 되어 예배와 기도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등 놀라운 변화들이 교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최근에는 어린이 알파, 중고등부 알파, 경로알파코스가 실시되어 교회가 말씀중심, 전도중심으로 든든히 서가고 있다.

아름다운 꿈, 아름다운 교회

김 목사의 부임 이래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선교와 섬김의 극대화"이다. 주님의 지상최대명령(마28:18-20, 행1:8)을 수행하고,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회를 섬겨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동안 김 목사와 교회의 중심 화두였다. 이제 강북지역과 우두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보다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교회 건물의 확충과 시설의 재보수를 준비하고 있다.

김 목사는 개인적으로도 아름다운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선교 동원가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인생도 선교인생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꿈이다. 김 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이 4대에 걸쳐 한국선교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예를 들며, 자신도 마지막까지 이 사역에 헌신하겠다고 말한다. 이미 장남은 C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타의 가족들 또한 선교의 일선에 나서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김영원 목사와 박인철 목사.

이상직 원로장로 등 24명의 장로들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나아온 74년 전통의 우두교회. 그 전통만큼이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고 있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날까지…"

봄내호스피스 (기쁨의 집)





봄내호스피스(기쁨의 집)는 말기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우들을 위해 1999년 춘천에서 설립된 기독교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말기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삶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봄내호스피스(기쁨의 집)는 그 운영에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실천과 영혼을 살리는 복음전파(선교)가 그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봄내호스피스는 처음부터 <무료기관>을 고집하고 있다. 환자들로부터 어떤 비용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래서 재정적인 운영은 처음부터 개인과 교회, 기업들의 후원에 의존하여 왔다. 처음엔 그 운영방법에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은 한번도 그쳐지지 않았다.

봄내호스피스는 1999년 10월, 현 소양제일교회 이주호 목사와 김태민 사무국장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처음엔, 병원과 가정에 있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방문 봉사를 펼쳤으나, 입원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중, 기쁨의 집(원래 기도원)을 소유하고 계시던 한상호 장로의 사용허락으로 2000년 11월 <기쁨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입원요양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봄내호스피스는 설립된 이래, 약 400명의 말기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기쁨의 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소천하심으로 선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천한 환자들 가족의 숫자까지 고려하면 봄내호스피스 사역의 선교적인 효과는 훨씬 크다. 실제로, 기쁨의 집을 다녀간 환자의 가족들이 시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봄내호스피스(기쁨의 집)는 현재, 8명의 직원과 3명의 협력간사, 그리고 매일 교대로 들어오는 7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환자들을 섬기고 있다. 춘천시내 병원 의사들(촉탁의)이 주 3회 방문하여 진료하고 처방하여 환우들의 통증을 조절하고 있으며,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의 증상조절과 자원봉사자들의 간병과 상담, 그리고 매일 2회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기환자들의 아픔과 불안을 전인적으로 케어하고 있다.

봄내호스피스는 부족한 자원봉사자들의 충원을 위해 매년 2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내 각 교회들을 통해 교육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이 이에 협력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앞으로도 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자원봉사자 교육은 계속 실시될 예정이다.

봄내호스피스(기쁨의 집)의 비전은 <호스피스전문 무료의료센터>의 개설이다. 말기환우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케어를 항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주하는 의사와 8명의 간호사, 그리고 20병상의 시설로 예정된 이 무료의료센터는 춘천시내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죽어가는 말기환우들에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날까지…" 봄내호스피스의 뜨거운 열정은 계속될 것이다.

[김태민 사무국장]

*문의 : 사무실 263-5454 /www.hospicecc.or.kr

*후원방법 : ▶CMS 신청 : 기쁨의 집에 전화하시면 바로 자동이체가 되는 편리한 제도

▶은행계좌 후원 : 농협 203-12-181316 이주호

▶지로신청 : 전화주시면 지로용지를 우송

| 영혼의 양식

즐거움을 갖고 삽시다 - 시편 21 : 1~4



김 혜 영 목사 (춘천중앙교회)

장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에 처에 있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 응답의 즐거움

1, 2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늦게 결혼을 하였기에 자식을 빨리 낳았으면 좋겠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기도하라는 뜻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은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기도 하십니다. 간절한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메임을 명심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응답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간절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입술에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고 응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응답을 받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원을 주실 때는 기도하라는 뜻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응답의 즐거움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 영접의 즐거움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해 놓았으니 기름을 부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 명의 아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늠름한지 왕이 아닌가 싶은데도 하나님은 "계속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아들이 더 이상 없소"하고 묻자 이새는 "있기는 있는데 저 들에 나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별로 시답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이라 기름 부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는 영접을 안해도 하나님이 영접하사 금면류관을 씌워 왕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람의 영접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면 됩니다. 영접의 즐거움입니다.

3. 영생의 즐거움

4절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라고 하였는데, 다윗이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번은 다윗이 병들어서 "나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구나"할 때 음부에서 끌어 내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생명을 구했더니 생명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영영한 장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믿기에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교사"

효제초등학교 지향순 선생님(평성성결교회 집사)편



초등학교 교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필리핀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에서 2년간 헌신하고 돌아온 지향순 선생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자.

마닐라 한국아카데미란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의 설립배경은 이렇다. 1983년부터 필리핀 주재 선교사들이 자녀학교 설립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닐라에서 선교단체 대표들로 자녀학교 설립 실행이사회가 구성되었다. 한국에서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AM)의 주관 하에 마닐라 한국 기독교학교 이사회가 그해 말에 구성되어 학교설립이 본격적으로 준비되었다. 드디어 1994년 임대한 건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을 시작했으며 1995년 중학교 과정을, 1998년 고등학교 과정을 열게 되었다. 마닐라 한국아카데미는 MK(선교사 자녀)들을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진 기독인으로, 조국에 대한 긍지를 지닌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문화충격을 딛고 하나님 말씀을 세계 곳곳으로 전파하는 국제인으로 키운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MK를 위해 기도하는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과 2세 선교사들이 배출될 것이다.

한국아카데미를 알게 되기까지

무교적 배경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지향순 선생님. 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주일학교의 노래와 말씀이 좋아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단다. 그녀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은 대학생 때, 피아노학원 선생님으로부터 개척교회의 피아노 봉사를 권유받았다. 피아노를 배우는 단계에서 자신감도 없었지만 반주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깨달아 갔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선교로의 부르심

지난 2000년 양구로 발령을 받아 춘천에서 양구로 출퇴근할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던 목사님을 통해 마닐라 한국아카데미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지 교사는 몇 년간 그 학교에 대해 잊고 지내다 자신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자격부족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심적 갈등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03년 춘천 지역의 학교로 온 첫 해에 그녀는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에 대해 떠올리게 되었다. 그리고 마닐라 한국아카데미가 평신도로, 교사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정보를 알게 된다. 구체적으로 선교를 생각하며 여러 자료를 준비한 후 2004년 1월 방학을 이용하여 마닐라 한국아카데미를 탐방하고 2월에 고용휴직을 하고 필리핀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에서 사역하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여러 장애에 부딪혔다. 하나는 교회건축.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역지로 떠나기 바로 전에 교회건축을 끝나게 하셔서 부담감을 털고 사역지로 나가게 하셨다. 또 다른 장애는 물질의 문제. 2년간 필리핀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지 교사에게 물질적으로 큰 손해가 나는 일이었다. 친구들은 그녀의 나이와 2년 등안 포기해야 할 물질을 계산하며 반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역지로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가장 큰 어려움은 병환 중에 계신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런저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다가는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주님께 맡기고 떠났던 것이다. 병환 중에 계셨던 아버지는 지 교사가 귀국한 올 3월에 돌아가셨다. 주님은 그녀가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주셨다.

한국아카데미 사역을 마치면서

지향순 선생님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작하여 2년간 필리핀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교사의 달란트로 주의 자녀들을 섬겼다. 첫 해에 맡은 아이들은 5학년 8명 이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중국의 모슬렘 지역에서 사역하시다 1년의 안식년을 이곳에서 보낸 선교사님 가정. 선교사님은 학교 아이들의 신앙지도를 해주셨고, 중등에 딸을 초등에 아들을 맡겼다. 얌전하고 탐구력이 있지만 굳어져 있는 얼굴이 항상 마음에 남아있던 아이. 안식년을 보내고 떠나기 몇 주 전에 이 아이가 탁구에 관심이 많고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 교사는 작별 선물로 탁구라켓을 주었다. 평소 말이 적고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던 아이가 "선생님, 탁구 라켓 정말 맘에 들어요."라며 활짝 웃었다. 또 선교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 이들은 그녀에게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베풀도록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건강, 물질, 맡겨진 아이들의 신앙적 성숙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던 중 2004년 6월 중순경 큰 고비를 맞게 되었다. 본래부터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더위에 체력소모가 심했는지 영양의 불균형을 잃은 탓에 3일 밤낮을 링겔을 맞았다. 고열로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고 이로 인해 사역을 접어야 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주변에 계신 간호사 출신 선교사님들의 도움과 등료 사역자들의 기도와 배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지향순 선생님은 자신이 드린 시간과 물질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말한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초등 전체 아이들과의 예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학급 아이들과의 아침 성경묵상, 연초에 갖는 신앙수련회, 화요일 오후에 갖는 교사 기도모임, 매월 1회 금요기도모임 등은 하나님과의 끈을 더욱 붙잡는 귀한 체험의 시간이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늘의 만나로 영적인 새 힘을 얻었고, 맛깔스런 음식을 대접해준 손길로 육체적 힘이 회복되었다. 마닐라 한국아카데미의 생활은 그녀의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었다.

앞으로의 계획

지 교사는 올해 2월에 귀국했고, 현재 효제초등학교 1학년을 담임하고 있다. 그녀는 필리핀을 다녀온 후 자신이 속해 있는 이 학교가 진정한 선교지임을 깨닫고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헌신을 다짐해본다. 특히 결손가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이 지역의 아이들에게 부족한 사랑을 채워주려고 노력한다. 주어도 주어도 끝없는 사랑을 원하는 아이들. 그래서 그녀는 날마다 기도한다. "하나님, 아이들의 영혼에 더 큰 사랑을 베풀어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을 용납하고 더 큰 사랑으로 감싸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빛으실 복된 그릇으로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말이다. 주님이 다시 가라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지향순 선생님. 그 빛나는 눈빛에서 헌신된 교육자의 참모습을 보고 기쁨의 발길을 돌렸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8·15 광복절연합예배

- 일 시 : 8월 13일(주일) 오후 7:30
- 장 소 : 순복음춘천교회
- 주 최 : 춘천교역자연합회
- 강 사 : 임 택 권(아시아연합신학대학 총장)
- 문 의 : 회 장 최현묵 목사(남춘천침례) 011-9792-8045
  부회장 한 균 목사(평화감리) 016-9374-0962
  부회장 피종호 목사(나눔성결) 011-399-2939
  총 무 김덕용 목사(중부장로) 010-3370-3616
  회 계 김원중 목사(강남온누리장로)
  서 기 김성수 목사(아름다운순복음)

춘천 3기 어머니학교

♥일시 : 8월 30일(수) ~ 9월 27일(수)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 석사감리교회
♥개설팀장 : 정태순 집사
♥문의 · 등록 : 민병임 018-325-1968
정태순 011-362-1338
김화숙 011-363-0926
♥등록금 :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812-51-022689 예금주 정태순

민선 4기에 바란다!!

지난 5월 31일 선거로 선출된 민선 4기 지자체 단체장과 의원들이 7월 초부터 취임식과 함께 그 업무를 시작했다. 꿈이 강물처럼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취임사와 의원들이 약속했던 초심의 공약들을 기억하며 민선4기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았다.

꿈이 강물처럼 흐르는 춘천을 소망하며...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아도 공정하다고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정책과 결정이 되기를 바라며, 특히 복지에 대한 비전은 거대하지만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부재한데 좀 더 서민들에게 와 닿는 정책을 입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복규 목사-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길

어렵고 소외된 서민층의 민심을 찾아 손을 잡아주는 지도자,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돌아보고 해야 할 일을 찾아보며 시민의 말을 들어 정책에 잘 반영해 나감으로 신뢰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호규 장로-

그늘진 곳을 향하는 목민관

정치가가 되지 말고 목민관이 되어 그늘진 곳을 살펴서 소외받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도정과 시정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과시적이고 일시적인 행정을 자제하고 실속 있는 살림을 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호 목사-

서민들의 눈높이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아는 평범한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현남 집사-

안전한 놀이터와 도서관을 …

동네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도서관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영 어린이-

약속을 지키는 현명한 지도자

출마하실 때에 강원도민, 춘천시민과 약속하셨던 공약을 잊지 마시고 혼자가 아닌 도민과 시민과 함께 춘천을 이끄시는 현명한 민선4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박주열 청년-

실천하는 균형잡힌 정책 집행

탁상행정이 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을 실제로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개발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소외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정책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조지영 교사-

치료받는 국민이 행복하다

공약을 실천하는 취임자가 되기를 바라며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책임있는 공직자상으로서 최고의 공약효과가 있었으면... 치료받는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철규 장로-

살림꾼이 되시길

'정치꾼'이 아닌 지방 살림을 맡은 '살림꾼'이 되시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서 민생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정찬숙 주부-

도 · 시민을 위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강원도와 춘천의 발전과 도 · 시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섬김의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국민들의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은 어린이집원장-



[취재 최인조]

예 향

부흥의 원인

한국교회 청년사역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교회는 삼일교회입니다. 삼일교회는 10년 전 불과 80여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1만여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 목사는 스스로 부흥의 원인을 이것으로부터 찾습니다. 젊은 시절, 대학에 다닐 때도,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도 등하교시에 꼭 교회부터 들렸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학교에 가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끔 여학생이라도 보게 되면 "오늘은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셨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성경통독, 예배 등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 다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신다.' (최상도)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203-02-280238 조남진
조 흥 716-01-001389 조남진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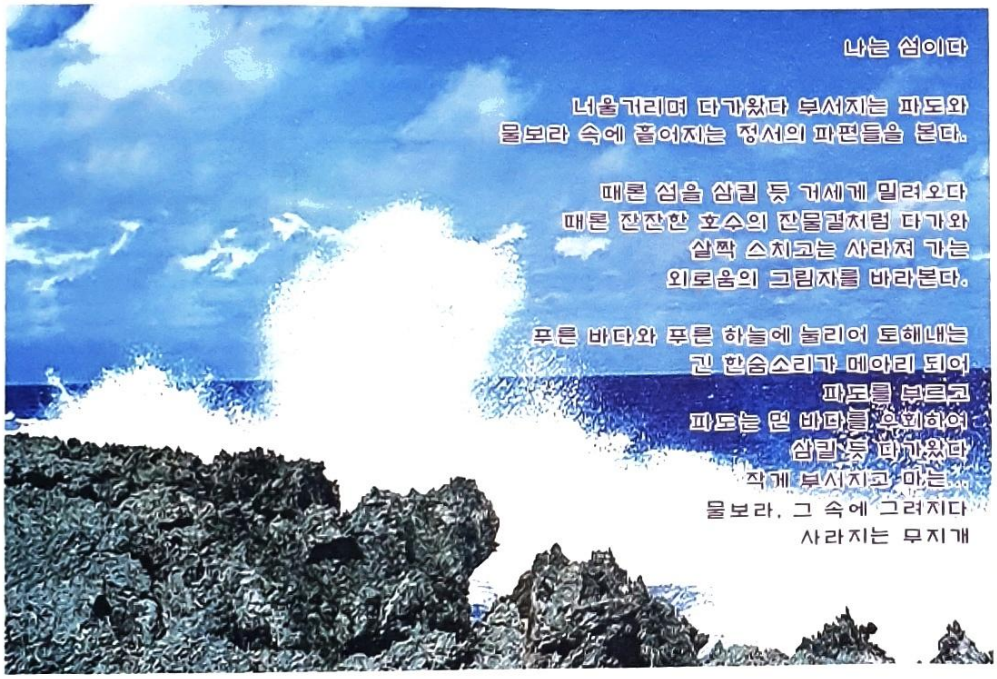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 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서부감리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주찬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등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시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엔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강원기독문화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업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철
안 미 애	안 정 숙
염 필 남	오 흥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관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치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앤투어 ntours
● 할인 항공권 전문
● 전세계 호텔 예약
● 여권 및 비자 업무
● 국내 · 외 여행 알선 (수학 · 졸업 여행)
● 배낭여행 · 어학연수
● 전세 버스 알선
● 신혼여행
● 유로패스/JR패스 예약 및 발권
● 해외선교 후원
대표 김 지 현 집사(춘천동부 교회) 011-9057-3946
TEL:244-7400 도청 밑에 위치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포·토·에·세·이

파 도



시 : 김 옥 연

책 소 개

「기다림」 - 수 몽크 키드 지음, 윤종석 옮김, 복 있는 사람



고 재 만 목사(춘천평안교회)

많은 피해를 주었던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다. 휴가를 갖는 의미는 계속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안식을 통하여 새로운 활력을 얻고자 함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휴가 계획을 세웠겠지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욱 유익한 휴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소개하는 책은 그런 우리의 내면 여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아주 무관심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내면에 무관심한 삶에는 고든 맥도널드가 말한 내면의 함몰현상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이다. 저자 자신도 분주한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갑자기 찾아온 내면의 위기가 있었다. 중년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내적인 아픔과 절망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 에벌레에서 누에고치로 그리고 화려한 나비로의 변신이었다.

저자는 엉미권의 대표적인 현대 문학가의 한 사람이자 기독교 작가이다. 목회자의 아내,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보통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는 일상의 것들을 마음으로 들어다보며 의미와 감동을 발견할 줄 아는 섬세한 사람이다. 그녀가 내면의 위기(중년의 위기이기도 하다)를 극복하는 영적 진리는 우연히(실은 하나님의 은혜) 발견한 나뭇가지에 메달린 고치였다. 그 고치의 변화는 우리 내면의 성숙의 과정과 같다. 그래서 그가 안내하는 내면 여행은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1부, 기다림과 변화는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그것을 극복해야만 하는 삶을 살폈다. 2부, 분리의 단계는 '위기는 기회다', '내려놓기'의 제목처럼 스스로 고치를 만들어 가는 애벌레의 모습에서 나온 영적 주제들이다. 3부, 변화의 단계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어둠 속의 부화'는 고치 속에 머물러 있어 죽을 것 같은 어두움과 외로움이 있지만 나비로의 변화를 꿈꾸며 기다려야 하는 번데기의 형상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자 자신의 영적 순례의 체험 속에서 강한 메시지가 된다. 4부, 출현단계는 '날개를 펴며'와 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한 동적 영성이 아닌 정적 영성에서 발견하는 은혜와 열매가 있기에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영성을 경험하고 성숙한 변화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행 사 안 내

▣ 월드비전 ▣

♣ 아동여름캠프
1. 일시: 8월 1일(화) ~ 3일(목)
2. 장소: 청소년 여행의집
3. 내용: 관계형성놀이, 추적게임, 물놀이, 캠프화이어 등

♣ 청소년 캠프
1. 일시: 8월 7일(월) ~ 9일(수)
2. 장소: 화천 반석수양관
3. 내용: 에스컴 썸머캠프에 참여

♣ 아동권리캠프
1. 일시: 2006년 8월 9일(수) ~ 11일(금)
2. 장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아동방과후교실 건강검진
1. 일시: 8월 16일(수) ~ 17일(목)
2. 장소: 춘천시건강증진센터
3. 내용: 기초건강검진, 체력측정, 건강상태 문증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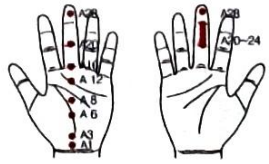
♣ 아동여름방학교실 종강식
1. 일시: 8월 18일(금)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 제20회 춘천연합찬양축제
1. 일시: 2006년10월21일(토) 오후 6:00~9:00
2.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3. 주최: 춘천기독교연합회
4. 주관: 월드비전춘천종합사회복지관
5. 후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CBS춘천방송, 강원도민일보사
6. 문의: (033)254-7244

건 강 상 식

▣ 여름철 냉방병 ▣

한여름에 몸을 지나치게 차게 하면 복통·설사·식욕부진·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이 심해지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냉방병의 원인은 감기와 같다. 오한·발열·두통·무기력·식은땀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선 실내의 온도를 적정수준으로 높이고 신체를 보온시켜야 한다. AI·3(4)·6·8·12·16·20·28에 서암뜸을 2~3장 양손에 떠준다. 서암뜸이 없을 때는 은박지를 녹두알 만하게 만들어 테이프로 붙이거나, 서암봉을 붙이고 장시간 있으면 체온상승과 원기증진의 효과반응이 나타난다. 코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A28에 서암봉을, 목감기 증상에는 A20~24 사이의 압통점을 찾아내은박지봉이나 서암봉을 붙인다.



사랑의 빛 월드비전 World Vision
· 한사랑(1만원) · 배사랑(2만원) · 놀사랑(3만원)
월드비전 후원계좌 : 농 협 240-01-078120
☎ 254-7244 조 흥 515-01-038052
우체국 210022-01-000322
예금주 월드비전

하나님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 !! **아가피아 독서교사과정(자기개발과정-초급) 공개강좌**

장소 : 춘천 베드로 선교센터 5층 추수홀(241-9939)
일시 : 2006년 8월 31일(수) 오후 7시

인간변화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기회!
<꿈의 학교> 설립으로 인정받은 아가피아 학습이 있습니다.

★ 이 과정에 참여할 대상
1) 자기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2) 아가피아를 통해 홈스쿨 교사를 하고 싶은 분
3) 가정에서 자녀를 영재와 인재로 양육하고 싶은 분
4) 자신의 기관(교회 및 학원)을 학습 공동체로 운영하고 싶은 분

★ 이 과정에 참여하신 후 기대효과 및 특전
1) 삶의 질 향상 : 자기 변화의 경험과 개발 과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기대
2) 능력의 향상 :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 방법과 자녀들을 인재로 지도할 수 있는 방향성과 능력을 기대
3) 수료증 및 자격증 취득 : 본 과정 이수자는 본 원에서 홈스쿨 자격증을 수여
4) 독서교사과정(2급 과정-독서스쿨/독서당 교사자격증 취득) 입학 자격 부여

★ 수강등록 안내
≫ 등록방법 : 우리은행 557-011649-13-101 (주) 드림교육으로 온라인 입금 후 전화로 등록 확인 인터넷으로 원서 제출 (http://www.agapia.or.kr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 교육비용 : 20만원
≫ 교육기간 : 9월 7일(목) ~ 10월 26일(목) (8주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40분
≫ 문 의 : 062-971-3952 (본부 사무실) 011-372-9100(김성호 목사)

아가피아 인재개발원 강원지부 (지부장 : 김성호 목사)

북한선교를 위한 연합예배



북한선교를 위한 연합예배가 7월 2일(주일) 오후 7시 30분 춘천은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쁜소식선교회 김용덕장로가 북한봉수교회 현장과 메시지를 전한 후, 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했다.

감리교 춘천지역 장로회 창립



감리교 춘천지역(춘천 양구 화천) 장로회가 7월 29일(토) 오전 11시 춘천명성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 선교와 봉사, 친교와 화합, 평신도지도자로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회장에 장준충(명성), 부회장 홍세표(신성), 김식권(중앙), 이효진(안디옥), 김현배(평화), 감사 김부희(광장), 총무 김영관(신성) 회계 이준열(명성) 장로가 각각 선출되었다.

춘천열린시민포럼



박세직회장 초청 열린시민포럼(주최:가칭 춘천포럼준비위원회)이 7월 6일(목) 오전 7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서 열렸다. 이날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은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소명과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5.31 당선자 취임축하예배 및 조찬기도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박상호목사)는 5.31 지방선거 도지사 · 시장 · 도의원 · 시의원 당선자 취임축하예배와 조찬기도회를 7월 7일(금) 오전 7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열

2006년 CBS 강원선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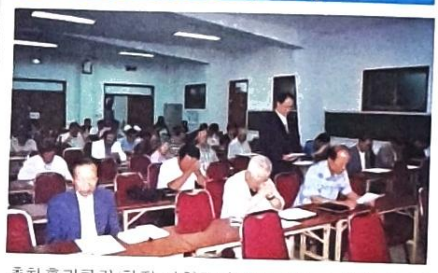
2006 CBS강원선교대회가 CBS춘천방송(본부장:김광수) 주관으로 7월 7일(금)부터 8일(토)이틀간 강원대 백령문화관에서 열렸다. 7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30분에는 대전중문침례교회 장경동목사 초청강연회를, 8일 오후 7시30분에는 전도바람을 일으킨 고구미전도왕 김기동 기독교사역연구소장의 간증집회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해비타트 번개건축



한국해비타트 춘천지회는 자원봉사축제인 '한국번개건축' 개회식을 7월 31일(월) 오후 2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자원봉사자와 입주가정, 후원기업 임직원, 춘천지역의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번개건축은 8월 5일까지 자원봉사자의 밤, 현정식, 폐회식 순으로 진행된다.

춘천홀리클럽 기도회



춘천홀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은 제5회 월례기도회를 7월 15일(토) 오전6시 춘천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춘천의 성시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월례회 및 조찬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외고설립 추진위원회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는 7월 25일(화) 낮 12시 옛날옛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약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곡학원 담당자의 설립에 대한 경과보고와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세계 십자가전





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하고 춘천YMCA가 주관한 생명과 평화의 상징 '세계의 십자가 전'이 7월 25일(화)부터 31일(월)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열렸다. 십자가전 개막행사에서 상설규 화백의 퍼포먼스가 있었고, 송병구 목사에 의해 수집된 세계 각국의 십자가 약 500여 개와 십자가 수묵화 등이 전시되었다.

아가피아 agapia 강원지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자녀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학교 아가피아 스쿨

신앙과 교육의 통합 AGAPIA스쿨 우등생을 뛰어넘어 인재로 아가피아 스쿨
▶ 매일하는 학습 구성으로 독서학습 능력을 기릅니다.
▶ 유용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국내 최초 e-러닝 독서학습, 듣기학습 등)
▶ 인격과 비전을 기르는 학습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매일 학습	주간 학습	월간 학습
아가피아 교과	기상 학습 영성 학습 성찰 학습	독서/독해 학습 토론/논술 학습 듣기 학습 강의 학습	리더십학습 멘토 학습 찬양 학습 프로젝트학습
학교 교과	초등 / 중등 / 고등과정 온라인 스쿨		
영어 교과	1. 유치원과정(7-8세) : EF교과/미국교과 2. 초1-2(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 3. 초3-중3(미국국정교과) : 영어 수학 과학 사회테마 프로젝트		

흔히 인격을 갖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격만 있고 실력이 없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충충하지만 비전이 올바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큰 비전을 품고 있으나 인격과 실력이 미천하면 그의 비전은 말로만 그치는 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 탁월한 인재는 인격과 비전과 실력이 고루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바른 꿈을 품고 인격을 함양하며 실력을 키워나가는 사람.

아가피아 스쿨은
영성을 갖춘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는 방과 후 대안학교입니다.

■ 상담 및 문의 033-241-9939 (사무실-춘천 베드로선교센터 5층)
011-372-9100 (김성호 목사-아가피아 강원 지부장)
011-9797-4217 (최승만 목사-강원 아가피아 스쿨)

사 설



오늘을 참된 해방의 날로…

박 상 호 목사
본보편집장 춘천제일장로교회 담임

97년 전 한일 합방이라는 명분아래 일본의 식민지적 통치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61년 전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이라는 은혜를 입었다. 물론 많은 애국투사, 열사, 지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임시정부를 만들고 조선은 자주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민족지도자들의 수고와 피맺힌 땀방울의 결과이기도하다. 조국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기대해 왔었다.

그러나 참된 해방은 자기로 부터의 해방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기심과 욕구불만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 참된 해방일 것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춘천제일교회는 몽골에 선교지 교회를 가지고 있다. 지난달 다녀오면서 두 군데 더 개척을 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몽골인들의 말발굽이 춘천을 휩쓴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손을 내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돕는다. 이러한 몽골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김종래씨가 쓴 'CEO 칭기스칸'이란 책이 있다. 그 책에는 칭기스칸의 리더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세계의 장수 가운데 왠지 칭기스칸이라면 우리에게는 친근감이 있다. 칭기스칸은 인간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겼다. 특히 인간에 대한 은혜와 관계를 무척 중요시 여겼다. 예를 들면 그는 전쟁에서 개인적 약탈을 금했다. 모든 전리품을 공동으로 나누게 하였다. 승리의 은혜를 모두가 함께 나누게 하였다. 자신을 칭기스칸이라 부르지 말고 테무친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 말을 태우기도 했다.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꼭 옆에 참모나 아내들이 함께 있게 하였고 독대가 없었다. 이 말은 야합이 없고 모든 일을 합의에 따라 처리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인간관계가 그를 위대한 정복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때 몽골은 부강한 정복자의 나라였다.

역사의 흐름 앞에 엄숙하게 자신을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쪽에서는 수해로 인하여 눈물과 한숨이 범벅을 이루고, 한쪽에서는 그들을 돕자고 힘을 모으는데 또 한쪽에서는 노사가 충돌하여 분쟁을 일으키고, 믈난리로 아수라장 속에서도 술판을 벌린 지도자도 있었다. 이것이 참 해방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진정 해방의 값어치를 아는 자에게 참 해방을 주신다. 해방은 자유로움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해방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신동교회 학생부수련회 협력'
일시: 8월 2일(수) ~ 5일(토)
2) '제10회 예스컵 썸머캠프'
일시: 2차 8월 7일(월)~9일(수) 주제: 소아시아의 7교회
장소: 화천반석수양관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중국 단기선교'
일시: 7월 24(월) ~ 8월 5일(토)
2) '광야훈련 및 개강수련회'
일시: 8월 16일(수) ~ 19일(토) 장소: 강원도 처소 곳곳
3) '2학기 개강 채플'
일시: 9월 1일(금) 오후7시 장소: CCC 아카데미하우스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8월 1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 홍장빈
8월 8일 예배 1 : 심형진
8월 15일 예배 2 : 이원민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 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춘천지부 사무실(한신아파트 맞은편)
대상: 가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기도전략세미나
일시: 10월 9일(월) ~ 13일(금)
강사: 이광일사모, 정형섭목사 문의: 252-1128

◆세계태권도선교회 '알릴루야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1-9791-6055

◆여호수아워십댄싱선교회 '워십선교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체육관
문의: 263-6022, 017-374-2440

◆어린이전도협회
1) '3일 클럽'
일시: 7월 31일(월) ~ 8월 4일(금) 4박5일 숙박
장소: 나눔성결교회 등록비: 15만원
2) '32,33기 TCE 전도자 대학 1단계'
일시: 8월 21일(월) ~ 9월 1일(금)
오전반 9:30 ~ 13:00 저녁반 6:30 ~ 10:00
장소: 미정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 JDM
1) '2학기 개강 LTC'
일시: 8월 21일(월)~24일(목) 장소: 미정
2) 'IMTI'
일시: 8월 7일(월)~25일(금)
장소: JDM선교훈련센터
문의: 252-3192 / 011-9058-3192

◆IVF
1) '지방사역협의회'
일시: 8월 9일(수) ~ 10일(목) 장소: 춘천 IVF회관
2) '간사가족 수련회'
일시: 8월 10일(목) ~ 12일(토) 장소: 강화도
3) '각 학교별 챕터 캠프'
일시: 8월 중 문의: 252-5200

◆ GBT
1) '2006 선교한국 '잊혀진 부르심'
일시: 7월 31일(월)~8월 5일(토) 장소: 한양대(안산캠퍼스)
2) '전국 비전기도회'
일시: 8월 7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삼광교회
빌씀: 안드레 선교사(북아프리카X국)
3) '워클리프스쿨 전국리더교육'
일시: 8월 21일(월)~24일(목) 장소: 대전
강의: 이성우 선교사
4) '춘천 비전기도회'
일시: 8월 28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문의: 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033@gbt.or.kr]

◆춘천 7기 아버지학교
일시: 8월 26일(토)~9월 23일(토)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문의: 최기용 016-360-6350, 김헌 016-9296-8440

◆광복절연합예배
일시: 8월 13일(주일) 오후7:30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강사: 임택권이시아랜합신학대학 총장 주최: 교역자연합회
문의: 회장 최현묵 011-9792-8045 총무 김덕용 010-3370-3616

◆ 춘천 3기 어머니학교
일시: 8월 30일~9월 27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오후3시
장소: 석사감리교회
문의: 민병임 018-325-1968, 정태순 011-362-1338

◆춘천MPS 11기 개강
일시: 9월 2일(토) 오후3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019-9903-1148

◆춘천청년포럼 '영성집회'
일시: 9월 2일(토) 강사 : 송근태교수(토라사관학교)
장소: 미정 문의: 이병훈 017-254-3162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4기모집)"

1. 개강일시 : 2006년 8월 21일(월)오후 6시40분(시간엄수)
2. 기 간 : 8월 21일(월) ~ 9월 15일(금)매주월화,목,금 7:00~10:00PM.) 1일 3시간씩 1개월(16일간 총51시간)학습및 훈련.
3. 훈련단계 및 교재 : 『인트로단계』 4기, 교재 : "Interchange(intro)"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 '꿈이있는교회' (교통편 키울 25번, 23번, 26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
   ①초5,6년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 컴플렉스 해결! 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
   ③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 원하시는 분, 최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초등생부터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영어선생님, 유학준비생, 대학생, 주부들이 한지리에서!
   ⑤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⑥영어핵심을 통해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빠른독해)에 대해 중요한 기초를 확립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등록비감 : 8월 17일(목)까지(선착순 42명). (☎264-0691,011-386-6239,010-8250-0688)
7. 공개설명회 : 8월 11일(금)오후 7시 ~ 8시30분(시간엄수)

※첫시간 이외에는 청강을 금합니다. 모든 훈련생은 반드시 공개설명회나 첫 시간(21일)을 참석해야 하며, 공개 설명회나첫 시간(21일)을 참석치 않으신 분은 훈련생 등록을 부득불 취소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난다!' '단 한달만에 입이 열린다!'
'이미 춘천 수료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반신반의로 찾던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100% 등록 했습니다!'
'중학교 영어를 전담하는 중학 예비생들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해'가 아닌, 올바른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할때 회화가 됩니다.

훈련생후기문
- "이 프로그램은 결코 공식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훈련방법을 체득하여 혼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 학습하고 나면 말문만 아니라 기존적인 회화의 패턴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세요 매일 같이 그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참고로 저는 『인트로 1기』를 수료한 39세의 박사학위소지자입니다 정말 영어에 한이 맺혀 배우기 위해 이곳 저곳인기본대가 없지요. 이무쪼록 본영한 성생님께서 우리에 맞이온 좋은 기회를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춘천고 1년(조)까지 훈련자-
- "학교에서 리스닝 시험때 테이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들려요(워요)" -춘이고 1년(조)까지 훈련자-
- "진화상담에서나 말을못 알아본던 '세군데 미국 대학원공계자 기본영어 알아 들어요" -미 주립대 대학원 합격자-
- "미국여행중 호텔, 마켓, 비행기에서, 원어민과 2~3시간 대화해서 자유롭게 대화가 돼요" -춘중 2년-
- "영어회화 학원에 없는데 이런 원어민 만나도 전혀히 이야기 할 수 있을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고등출신 50대 주부-
- "영화가 들려요" "길 가는데 영어가 귀에 나와요" "영어가 너무쉬워요. 이렇게 쉬운걸 왜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어렵게 느껴지던 문법이 쉽게 정리가 되구요, 대강 단어를 외워 알수록 독해를 해서, 해놓고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본능한 자신감을 가지고 독해를 하고 또한 속도도 이주 빨라졌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 들고 훈련하게 됐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그 친구는 서울에서 왕복3시간씩 걸려서 차타고 와서 훈련 받아요" "예비 중학생에게도 정말추천해주고 싶어요" -초등생-50대 주부-

* 본 훈련의 훈련 일정 : "인트로 단계" →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교재 "Interchange Intro" → "new Interchange 1,2,3"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참조 : '춘천중앙감리교회' 홈페이지(http://www.chmchurch.org/main.html)커뮤니티 자유게시판 『800영어회화』를 참고하세요.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